

보도일시 (인터넷) 2024. 3. 12.(화) 11:00,
(지면) 2024. 3. 13.(수) 조간

배포 2024. 3. 12.(화) 06:00

어촌·연안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번째 현장소통의 장이 열린다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재하는 두 번째 토크콘서트 양양에서 개최
-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해양레저 종사자, 관광객 등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연안 관광을 통한 관계인구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3일(수) 양양 죽도해변에 위치한 웨이브웍스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소멸 위기 극복’을 지정하고, 어촌·연안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첫 번째 권역별 토크콘서트는 지난 2월 28일(수) 남해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귀어귀촌인, 귀어귀촌희망자, 어촌주민 등과 함께 귀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주거, 일자리 등 유인책 마련, 지원정책이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조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찾고 싶은 언어톡’은 동해권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현장소통 행보로서, 해양 레저 종사자, 어촌주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해양관광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해양문화 확산을 통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세 번째 토크콘서트는 서해권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화 확산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요롭고 활기찬 어촌·연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첫걸음”이라며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논의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어촌과 연안의 다채로운 모습을 충분히 느끼고 즐길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해수욕장 일원에 조성 중인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공사 현장도 점검한다. 강 장관은 관련 공사가 육상에서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빙기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의 해양레저관광명소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승준 (044-200-5610)
		담당자	서기관	신철용 (044-200-5611)
		담당자	사무관	심수빈 (044-200-5620)
담당 부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	책임자	과 장	장진수 (044-200-6170)
		담당자	사무관	조승래 (044-200-6174)
담당 부서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허중호 (044-200-5251)
		담당자	사무관	김용원 (044-200-5255)

참고

관련 포스터

찾고싶은 연어 **톡톡**

동해권 연안·어촌 토크콘서트

2024.3.13[수] 14:00
웨이브웍스 양양



주최



해양수산부

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